



강세원 이사  
(평양나코리아)

**작**년 극심한 IMF 불황경기를 겪었으나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연이어 터진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사상 최고의 고가 행진을 계속해온 양돈경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이번 9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 비육돈 생산기반은 IMF이전 수준으로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추석 이후 본격적인 돈육 비수기에 접어드는데다 엄청난 수입물량이 소비대기 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육류의 부담은 엄청나다. 이미 상반기중 수입된 물량은 6만여 톤의 수입돈육뿐 아니라 수입우육도 6만여톤이, 심지어 닭고기까지 작년대비 5배이상 늘어난 2만7천여톤에 이를 정도로 수입되었으나 대부분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돈가의 호·불황에 따른 사육두수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9월 추석 이후 돈육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돈가는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사육두수의 계절적인 공급증가는 예상보다 많지 않고 연말 수출수요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지육 kg당 3,000원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97년 자유화 이후 국내 돈육시장은 소비자들의 강력한 국내돈육 선호현상으로 인해 수입돈육과는 거의 별개의 시장을 형성해왔다. 특히 수입자유화에 따른 장기적 변화

## 고돈가 행진여부, 9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의 물량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인해 소비되지 못한 채 체화되고 있어 돈가상승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국내 사육기반의 회복속도는 국내 일부의 분석자료와는 달리 그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사료 생산량 추이를 토대로 한 올 가을 이후 공급량이 작년수준에서 5~10%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아직도 예전수준으로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료 생산량 추이에서 비롯된다. 돈가가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다 쉽게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소규모 사양가들이 점차 없어지고 전업농가

로 국내 돈가가 국제 돈가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백화점·대형할인점과 같은 고가 고품질 브랜드 돈육시장에서의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가격 차별화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차별화가 과연 진정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꼼꼼히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예상되는 향후 돈육비수기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번 9월의 돈가로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번 9월은 우리 모두에게 주목되는 달이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부팀)

국내 냉장육의 수요가 확대되어 국내시장에서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냉동육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8월 돈육 수요는 6월 다이옥신 파동 이후 다소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9월 들어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공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일 돈육 수출, 내수시장 모두 좋지 않아 채산성이 심각할 수준에 도달하여 원료돈 확보 문제를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중단 검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예상된다.

9월 상순 돈가가 하순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들어서면 10~11월 돈가는 더욱 하락하여 4월부터 유지된 지육가 3,000원/kg 대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극적인 돈육 소비 증가가 없는한 단순 출하 두수 부족에 의한 돈가 유지는 어렵다고 전망되며 돈육 소비 홍보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도 장기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돈육 시장은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

## 9월 지육가 3,000~3,100원/kg 예상

특히, 대일 수출 측면에서 수출 물량 구성의 50% 이상을 점하는 후지 수출이 일본내 재고 과다, 캐나다산의 지속 수출로 수출이 거의 어렵게 되어 국내에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시중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어 가공업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1월~7월 돈육 수입 실적이 86,000톤으로 전년동기 수입량의 270.3% 수준에 이르고, 8월말 기준으로 수입돈육 재고는 45,000톤으로 추정되어 현 고돈가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9월 돈가는 3,000원~3,100원/kg

기화된 고돈가가 외부 여건에 의해 일본과 같은 저돈가로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현 여건하에서 경쟁력을 갖는 한국 양돈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할 때다. 양돈



장기화된 고돈가가 외부 여건에 의해 일본과 같은 저돈가로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현 여건하에서 경쟁력을 갖는 한국 양돈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할 때다.



**돼**지고기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 가고 있다. 특히 수입육 재고 과잉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냉장육, 브랜드육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되고 있어 일부 소비선호 부위의 경우 물량이 달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냉동육은 삼겹살, 목살 등 재고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수입육의 경우 다이옥신 파동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육 외면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육유통 및 판매는 '파리 날리고 있다.'

더욱이 수입육의 경우 일부 수출국들과

은 소비가 둔화됐는데도 국내산 지육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삼겹살 역시 kg당 3천8백원~4천원대의 덤핑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매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급에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현상은 국내 양돈농가 및 육가공업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소비가 조금만 살아나면 급작스러운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수입육 오퍼업체들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선적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판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 국산 냉동, 수입육 재고누적 가격영향 우려

연계한 유통업체들의 할인판매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약 5백톤~1천톤 이상 수입육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들의 자금압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육의 이같은 현상은 성수기를 지나면서 돼지고기 소비둔화 시기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kg당 3천원대의 고가행진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입육의 덤핑, 저가판매는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돼지고기 시장의 아니러니한 현상

매업체들은 컨테이너 베이스의 저가판매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내산 지육가격도 집중호우 및 태풍영향으로 한동안 가격상승이 이뤄졌으나 소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 예상외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북부 및 일부 지방의 집중호우 이후 나타나는 돼지 질병확산으로 출하물량 부족 현상도 예측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만에 하나 출하물량 부족시기에 소비시장이 움직이면 국산 가격은 곧바로 가격하락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돈농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다. **양돈**